미래에셋, AI·디지털자산 중심 인사 개편… '3.0 전략' 본격화

승진 임원 20% 기술·보안 전문가
정보보호 조직 격상·IT 수장 교체
디지털엑스 대표에 노용우 내정
WM·연금 현장 리더 30% 차지
40대 승진자 64%·여성 17%

미래에셋그룹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셋 3.0' 전략을 사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술·보안·영업 조직을 재정비했다. 승진 임원 5명 중 1명을 기술 분야 전문가로 채우고 정보보호 조직을 격상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이끌 새 수장을 내정하는 한편 자산관리(WM)·연금 현장 리더를 중용해 기술 전환을 고객 서비스와 영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를 미래에셋 3.0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를 출범한 데 이어, AI를 자산운용(AM)과 자산관리(WM) 전반에 접목할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승진 임원 20% 기술 전문가… 정보보호 조직도 격상

이번 인사의 핵심은 AI전환(AX)·디지털·정보보호 분야의 리더십 강화다. 전체 승진 임원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그룹 차원의 AX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업 전반에 적용해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 대응 조직의 위상도 높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정보보호부문 대표에 사재식을 선임하고, 사재식 정보보호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침해대응팀과 개인정보보호팀에서도 이사 승진자가 나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고객 자산·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과 고객 서비스를 연결하는 조직에도 인력을 배치했다. 미래에셋증권 IT부문 대표에는 김준환을 선임했으며, 고객서비스혁신부문 대표에는 이기상을 선임했다. 승진 명단에는 AI자산관리솔루션팀, AI 사이언스(Science)팀, 데이터(Data) 플랫폼팀 등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전력 인프라 확장… WM·연금 현장 중용

디지털자산 사업에서는 디지털엑스(Digital X) 대표이사로 노용우 부사장을 내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표이사 변경신고 수리 후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노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2021년 11월부터 경영혁신부문 대표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그룹위험관리부문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혁신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그룹은 노 내정자의 경영혁신·위험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엑스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삼아 계열사의 금융 역량과 디지털자산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인프라 투자 전문가인 우신제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를 선임했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더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 인력도 중용했다. 전체 승진자의 30%를 WM·연금영업 현장 리더로 구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RM1부문 대표에 이정원, 연금법인솔루션부문 대표에 정진성, 연금혁신부문 대표에 박상준을 각각 선임했다. 대고객 서비스와 영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자산관리·연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40대와 여성 리더 발탁도 확대했다. 국내외 전체 승진 임원 중 40대 비중은 64%로 3명 중 2명에 가까웠고, 여성 비중은 17%였다.

미래에셋그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그룹 전반에 내재화하고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룹 측은 "'클라이언트 퍼스트(Client First)' 철학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경험과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회계사 합격해도 일할 곳 부족… 선발 축소론

합격자 300명 실무수습처 못 구해
회계법인 채용 감소에 AI 확산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을 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인원이 쌓이면서 연간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계법인의 채용이 줄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신입 회계사가 맡는 업무도 감소할 수 있는 만큼, 향후 2~3년간 선발인원을 현행 1150명에서 연 850~1000명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계정책연구원과 지난 4일 상장회사회관에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합격해도 수습처 부족… 회계법인 채용 감소

황문호 경희대 교수 등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에 따르면 회계법인 매출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8%로 둔화했다. 신규 채용에서 퇴사 인원을 뺀 순고용은 2023년 1160명에서 2025년 370명으로 줄었다.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당해연도 합격자의 수습개시 비중은 2022년 89.2%에서 지난해 63.6%로 하락했다. 합격자 10명 중 해당 연도에 수습을 시작한 인원이 약 9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연구진은 올해 9월 기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인원을 약 300명으로 추정했다. 재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미지정 인원은 723명이며, 이 가운데 2024~2025년 합격자는 623명이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에서도 선발 규모가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최근 선발인원에 대해 일반기업 응답자의 67.6%, 수험생의 45.9%가 '많다'고 답했다.

향후 5년간 적정 선발인원이 '1000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은 일반기업 69.0%, 수험생 48.3%였다. 응답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적정 선발인원은 일반기업 933명, 수험생 1012명으로 현행 1150명을 밑돌았다.

◆AI 영향 신입에 집중… "수습 수용능력도 고려해야"

연구진은 AI 등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부문 인력 수요가 3~5년 후 약 10%, 5년 이후에는 약 12~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I 활용에 따른 업무구조 변화는 저연차 회계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1~2년차 직원의 업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범위는 5~50%로 제시했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영향은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2~3년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연 850~1000명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인력 수요, 누적된 수급 불균형, 합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무수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반도체 3배 ETF 팔고 또 샀다

해외주식 Click

10월 SOXL 순매수 29억달러 1위
월말 사흘간 9억달러 넘게 순매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였다. 순매수 결제액은 29억6785만달러로 2위 스페이스X(4억6807만달러)의 6배를 넘었다.

하지만 월말 흐름은 달랐다. SOXL의 누적 순매수액은 21일 이후에도 4억달러 가까이 늘어 27일 38억8746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8일 35억8925만달러, 29일 33억4812만달러로 줄더니 월말에는 29억6785만달러까지 내려앉았다. 마지막 사흘 새 9억2000만달러가량을 순매도한 셈이다.

매도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11월 들어 3일까지 SOXL 순매수액은 11억4409만달러로 해외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월말 사흘간 내던진 금액보다 많은 돈을 곧바로 다시 쏟아부은 것이다. 최근 1주일(10월28일~11월3일) 기준으로도 2억2448만달러 순매수로 2위에 올랐다.


반도체주 급락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 매매를 두고 고민하는 서학개미를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 생성 이미지

반도체 급락이 매매를 흔들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0일(현지시간) 하루 7% 넘게 떨어졌다. 인텔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4분기 전망을 내놓으며 30% 가까이 폭락해 1974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영향이다. SOXL은 이날 24.75% 떨어지는 등 10월 한 달간 50% 가까이 폭락했다. 급락 이후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I 매출 성장과 설비투자·현금흐름 간 괴리가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수능 당일 증시 개장·폐장 1시간 순연

코스피·코스닥 오전 10시 개장
정규장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미운영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거래시간을 임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1시간씩 순연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거래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기존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후 4시40분부터 5시까지, 시간외 접속매매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장 종료 후 대량·바스켓매매도 오후 4시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도 수능 당일 거래시간을 조정한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은 운영하지 않는다. 메인마켓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 애프터마켓은 거래 시작 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늦춰지며, 종료 시간은 오후 8시로 유지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나증권, 토스뱅크서 연 6% 발행어음 선봬

월 10만~200만원 적립·1000억 한도

하나증권은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제휴 전용 적립식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 앱에서 월 납입액을 설정하면 자동이체로 적립할 수 있다. 납입액은 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총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다. 8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전 연 6.0% 금리를 적용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한 신규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국내주식 매수쿠폰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에는 한화갤러리아 주식 1주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혜택은 이벤트 신청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허정윤 기자